

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농촌생활 정착 서비스

2017. 10.

강진군

| | |
|---|--|
| 강진군 |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농촌생활 정착 서비스 |
| <p>□ 추진배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정에서 겪는 외로움, 문화차이 등에서 오는 사회부적응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귀농 서비스 제공 ○ 사회주의의 경직된 사고로 한국사회 정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농촌생활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존감 회복 | |
| <p>□ 추진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진군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정착 시 어려웠던 점, 주민 간의 갈등 여부, 정책 지원의 확대 분야 등 욕구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상향식 정책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성취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 | |
| <p>□ 추진성과(기대효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누구도 믿지 못하는 깊은 불신이 국민디자인단 운영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 ○ 북한이탈주민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마련 | |
| <p>< 국민디자인단 운영 전·후 비교 ></p> | |
| 국민디자인단 운영 前(AS-IS) | 국민디자인단 운영 後(TO-BE)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무지, 무관심 • 한시적인 자금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방관 • 준비없는 귀농으로 실패 사례 빈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까운 이웃이자 통일의 동반자 • 상호 신뢰, 자립의지의 중요성 인지 • 체계적인 정착지원으로 성공사례 발굴 |
| <p>□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북하나재단 및 강진군 귀농사관학교와 연계한 체계적인 귀농 프로그램 제공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센터 마련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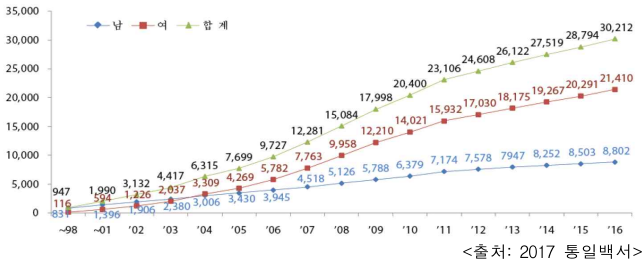
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농촌생활 정착 서비스

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과제 유형 | 단년도·협업과제 | 정책분야 | 사회복지 |
| 주관기관 (협업기관) | 강진군 총무과 (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) | 과제 담당자 | 박경석 주무관 사무실 : 061-430-3703 H.P : 010-9303-8142 |

1. 추진배경

□ 현황

- 2016년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30,212명이 남한에 거주 중이며, 성별 분포는 여성 70.9%, 남성 29.1%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음
 < 북한이탈주민 성별 분포 >



- 지역별 분포는 '수도권' 거주비율이 63.5%로 서울, 경기, 인천에 집중되어 있음
- 연령분포는 20대~40대 비율이 전체의 76.2%로 청장년층이 많은 부분을 차지
- * 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분포 및 일자리와 연관

- 3 -

□ 문제점

-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5%, 실업률은 5.1%(일반국민 고용률 66%, 실업률 3.6%)로 일반 국민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
- 취업자 중 상용직근로자가 55.7%를 차지하며,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는 32.3%, 자영업자 12%로 나타남
-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취업이 어렵고, 취업한다 하더라도 저임금 문제, 잦은 이직 등으로 근무기간 짧음
- 하나원 사회적응교육(12주) 동안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찾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
- 통일부에서 취업, 교육, 주거 등 다양한 정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(약 5년), 지원이 종료된 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 빈번



- 북한이탈주민 여성 입국자 대부분은 남한 사회 진입과 적응 과정에서 경제적, 사회적,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연구는 미미한 실정
-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는 여성들은 탈북 과정에서 중국인이나 조선족과의 매매혼을 비롯해 성폭력, 성매매 등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폭력에 노출
- 남한사회에서도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성매매나 유흥업소 종사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

- 4 -

2. 추진내용

□ 추진개요

- ◆ (사업목표) 북한이탈주민의 농촌생활 체험·정착 지원과 인간적 가치 회복
- ◆ (정책고객) 수도권 거주중인 귀농 의사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관내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
- ◆ (추진기간) 단년도 (2017. 1. ~ 12.)
- ◆ (소요예산) 160,000천원(국비 50,000천원, 군비 110,000천원)

□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갖는 트라우마 치료 필요

-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 수 여성이 탈북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면서 인권유린, 감금, 폭행, 강제노동, 성폭력, 인신매매 등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남한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며,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경계하는 마음이 강함
-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가족이 있는 경우 혼자만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
- *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야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짐

□ 남북하나재단에서 추진 중인 귀농교육과 연계

-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남북하나재단 영농성공패키지 사업과 강진군 귀농지원 프로그램을 연계
- 농촌은 열심히 일하고,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인식시킴
- * 도시에서 취업에 필요한 학력, 자격증 취득,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귀농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

- 5 -

- 수도권 하나센터와 연계해 직업교육, 자격증 교육 시 귀농을 고려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강진군 귀농사관학교 프로그램 소개
- 농촌민박, 팸투어, 지역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, 먼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성공노하우 전수
- *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된 혜택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, 미래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,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는 기회 제공

□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표현되지 않은 숨은 욕구를 반영

- 먼저 강진군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정착 시 어려웠던 점, 주민 간의 갈등 여부, 정책 지원의 확대 분야 등 욕구 분석
-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, 취업, 결혼, 학업 등 일상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을 디자인과제를 통해 해결
-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상향식 정책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성취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
- * 퍼스나(대표 수요자)를 통해 탈북과정과 하나원교육, 정착단계에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을 스토리화

□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비스 지원 확대

- 정보에 대한 습득, 이해 등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
- 개인별 관심 분야, 품목, 교육 정도, 시간적, 금전적 여유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교육 보다는 맞춤형 컨설팅 진행
- '여행은 살아보는 것'이라는 광고 카피처럼, 귀농 역시 살아보고 느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
- * 귀농, 창업 성공사례, 특화작물 재배 등 다양한 감사 품을 활용

- 6 -

< 2017 농림부, 전라남도, 강진군 귀농혜택 >

| 구분 | 주요 항목 | 방식 | 소요 예산(백만원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
| 농림축산 식품부 | ○ 귀농창업자금 | 융자 | ○ 300 |
| | ○ 주택구입, 신축 등 | | ○ 75 |
| | ○ 귀농인의집 조성사업(전국 70개) | | ○ 2,100 |
| | ○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(전국 58개) | 공모 | ○ 연간 2억(3년) |
| 전라남도 | ○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(전국 1개) | | ○ 4,000 |
| | ○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(도내 50명) | 신청 | ○ 1인당 1천만 원 |
| 강진군 | ○ 귀농사관학교 귀농프로그램 운영 | | ○ 106 |
| | ○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| 신청 | ○ 13 |
| | ○ 귀농인 공기수리 보조 | | ○ 100 |

- 농촌 지자체 마다 귀농하면 쉽게 대출을 받고,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홍보 때문에 귀농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음
- 사회주의 체제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적인 국민의 경제관념이 부족한 실정
-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자금이나 작목선택이 중요하며, 지역민과의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상호간의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
- * 근래 농촌사회에서는 도시에서 귀농하거나, 은퇴 후 귀촌하는 사람들과 토착 지역민과의 갈등이 종종 발생

<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 >

| 연도 | 주요 추진사항 | 소요 예산(백만원) |
|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'17년 | ○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센터 설립 ○ 북한이탈주민 주도 사회적 기업 설립 | ○ 50 ○ 30 |
| '18년 | ○ 귀농정착 관련 교육 ○ 주거, 정착지원금 지원 | ○ 10 ○ 40 |
| '19년 ~ | ○ 북한이탈주민 선도 농가 5개 이상 운영 ○ 관내 북한이탈주민 기초수급자 "0" 도전 | ○ 40 |

□ 국민디자인단 구성 현황

| 구분 | 성명/소속/직위 | 역할 | 비고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국민 디자인 단 | 분야 전문가 (3명) | 변철진 대표 (디자인업체) | ○ 디자인 자문 | |
| | | 오일형 팀장 (산다음 영농조합) | ○ 사례 소개 및 활동 자문 | 마을기업 |
| | | 김순임 간사 (귀농사관학교) | | 귀농 매니저 |
| | 정책 수요자 (6명) | 홍화옥 | ○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 디자인 참여 및 제안 | 북한이탈주민 (4명) |
| | | 김영화 | | |
| | | 이재은 | | |
| | | 김민정 | | 마을주민 (2명) |
| 윤형준 이장(송촌) | | | | |
| 김재익(한우농가) | | | | |
| 스토리 두어 | 이은영 (청자골 참전복) | ○ 서비스 디자인 SNS 홍보 | 북한이탈주민 | |
| 서비스 디자이너 | 박주은 (덕성여자대학교) | ○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수행을 총괄 기획·운영 | | |
| 국민 디자인 단 담당 | 디자인단 담당 | 박경석 주무관 (강진군 총무과) | ○ 협업기관 업무협의 및 디자인단 관리 총괄 | |
| | 과제협업 담당 | 강철 과장 (남북하나재단) | ○ 북한이탈주민 영농사업 담당 | |
| | 과제협업 담당 | 서경희 경사 (강진경찰서) | ○ 신분보호 담당관 | |
| | 사업 담당 | 박진홍 주무관 (강진군 총무과) | ○ 사업설명, 이해관계자 참여협조, 활동결과 이행 | |

□ 국민디자인단 활동 단계별 산출물

| 구분 | 단계별 | 주요 활동내용 | 산출물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1차 | 국민 디자인단 이해하기 | ① 주제선정 : 먼저 온 통일,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② 팀구성 :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6명 및 디자인단 구성 ③ 팀오리엔테이션 : 2017. 5. 25. ④ 조사목표 설정 : 수요자 맞춤형 정책서비스 개발 | · 디자인단 구성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|
| 2차 | 국민요구 발견하기 | ① 조사준비활동 :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수준 진단,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지원 프로그램 검토 ② 데스크리서치 : 귀농에 관심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는 추세 ③ 새도잉 : 도시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귀농을 선택하는 이유와 초기 정착에 실패하는 요인 분석 | · 데스크 리서치 및 목표설정 |
| 3차 | 국민요구 발견하기 | ① 현황조사 : 강진군 관내 북한이탈주민 현황조사 및 분석 ② 관찰조사 : 귀농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청취 ⇒ 공급자 위주의 정책 문제점 발견 ③ 조사목표 설정 : 개인별 상황이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요소 분석을 위해 표준화된 정책 개발 필요 | · 정책수요자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문제점과 요구사항 파악 |
| 4차 | 국민요구 발견하기 (심층인터뷰) | ① 심층 인터뷰 : 홍화옥(53) - 탈북과정에서 자식의 죽음을 목격 - 조카 셋을 데리고 7년 전 탈북 - 공장, 식당을 전전하며 남한 생활 - 각박한 도시생활 보다 농촌에 살고싶어 귀농 프로그램에 참여 ② 심층 인터뷰 : 고영(58) - 직장생활로 모든 돈을 소 13마리 구입 - 축사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영농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자 신청 | · 2017 귀농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책수요자의 니즈 파악 |

| 구분 | 단계별 | 주요 활동내용 | 산출물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5차 | 진짜문제 정의하기 (서비스사파리, 이해관계자 맵) | ① 영농프로그램 계약체결 - 실습농가(2), 실습생(2), 강진군, 남북하나재단 - 6개월 간 실습진행(영농, 축사운영) - 실습농가와 마을 이장님들 협조로 강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및 영농실습 진행 ② 남북하나재단 영농프로그램 특성상 당초계획과 결과물에 대한 실습생들의 부담 - 하나재단 이룬 교육 시 선택했던 진로와 현장에서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 - 과정의 이수와 결과에 따른 평가로 정착금 1,500만원 수령 여부 결정 ③ 실습농가와 농가주택 소유자는 갑작스러운 북한이탈주민의 마을 거주가 다소 당혹스러웠지만,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진 뒤 서로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 | · 당초 예정되었던 실습농가 및 주거예정지 5차례 변경(실습작목에 대한 이해 부족) · 잦은 변경으로 인한 마을주민에게 사전연락이나 동의받기가 어려워 주민들도 당혹스러운 부분 존재 |
| 6차 | 진짜문제 정의하기 (퍼스나, 고객 여정맵, 서비스목표 설정) | ① 남북하나재단 영농프로그램 1기(2016) 김영화(축사 운영) 영농정착 사례 인터뷰 - 초기 실습농가에서 실습생이 아닌 외국인노동자 취급 받았음(실습농가 변경) - 남북하나재단 측에서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농가와 직접계약을 진행해 지자체에서도 해당 상황을 파악하지 못함 - 농가에서는 실제적인 교육 보다 남의 집 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인식 ② 퍼스나 설정 : 홍화옥 -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- 남한에 온 뒤 조카들과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탈북민 간의 신뢰 부족,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없음 ③ 서비스 목표 설정 - 북한이탈주민의 소외감, 트라우마, 취업문제, 주거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들의 해결방안과 농촌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접목 | · 퍼스나 설정 · 고객여정 맵 구성 · 서비스 목표 설정 |

| 구분 | 단계별 | 주요 활동내용 | 산출물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7차 | 아이디어 발전하기 (아이디어 워크숍) | <p>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상황이 개인별 편차가 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량면 이은영 : 전복양식, 연매출 5억 원 이상, 경제적 어려움은 없으나 가족관계, 탈북과정에서 낳은 딸, 재혼가정, 고부간의 갈등,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도우려는 의지가 강함 - 도암면 정련화 : 중국을 거쳐 탈북, 자녀 5명, 남편과의 갈등으로 별거, 기초수급자, 종교에 대한 믿음이 강하나 자립하려는 의지 부족 - 귀농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먼저 찾아오는 어려움 : 주거문제, 생활비 문제 <p>②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: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(주거, 교육, 정착 지원 등)</p> <p>③ 자립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협의체 구성 필요 : 북한이탈주민 간의 신뢰 부족 문제 먼저 해결, 금융시기 빈번 등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한이탈주민 농촌 생활 정착에 필요한 요소 검토 |
| 8차 | 아이디어 발전하기 (아이디어 스케치) | <p>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, 지자체의 재정지원만을 바라고, 자립하려는 의지가 결여 - 최저임금으로 근로하느니, 기초수급자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여유시간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팽배 <p>② 농촌생활은 스스로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며, 정신적 스트레스,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</p> <p>③ 협동조합, 사회적 기업 설립도 방법이지만 서로간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아 아직은 시기 상조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 해결 필요 |
| 9차 | 아이디어 발전하기 (아이디어 스케치) | <p>① 남북하나재단 방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일부, 하나원,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설명 - 영농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성공요인과 운영상의 문제점 검토 - 북한이탈주민의 농촌정착에 성공을 위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남북하나재단 영농 프로그램 운영과 지자체 역할 · 사업진행의 위험요인 분석 |

- 11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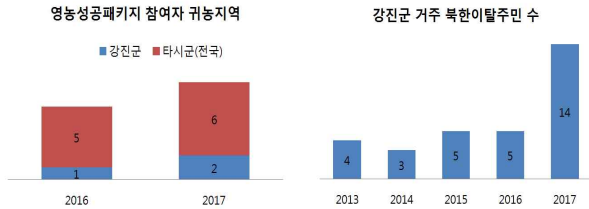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단계별 | 주요 활동내용 | 산출물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10차 | 아이디어 발전하기 (시나리오) | <p>해 지자체의 역할 강조</p> <p>② 위협요인 : 북한의 핵개발, 미사일 위협, 북한이탈주민의 불법적 집회활동 참여(어버이연합 등), 국정원 댓글사건 관여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북한이탈주민의 농촌정착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대북관계 악화, 각종 집회, 교육 참석으로 수당(10만원) 수령을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참여 등 탈북민 이미지 악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시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원 퇴소 이후 바로 농촌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개발 · 하나원 영농교육 지자체 공무원 참여 - 2017.11.24.(금) / 화천 제2하나원 |
| 11차 | 아이디어 발전하기 (스토리보드) | <p>①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마련(예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진군 귀농사관학교 일부 리모델링 - 게스트하우스 형태 임시거주 시설 마련 <p>② 귀농 과정에서 겪는 근로소득 보전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제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당 10만원 ~ 12만원 사이의 한시적 일자리 많으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(마량항 등) <p>③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북한이탈주민 채용, 소득의 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공익활동에 기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촌생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주거 문제 해결과 수확철 이외에도 기본적인 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모색 |
| 12차 | 아이디어 발전하기 (프로토타입) | <p>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11월 공포</p> <p>②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확대</p> <p>③ 북한이탈주민 농촌 정착서비스 스토리만화 제작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정적, 제도적 지원 방법 모색으로 성공적인 농촌정착 서비스 제공 |

- 12 -

3. 국민디자인단 운영 성과

□ 총괄

-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연계한 영농프로그램 운영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체계적인 영농정착 지원 가능
- 2016년 영농성공패키지 1기생 6명 중 강진군 1명 정착, 2017년 2기생 8명 중 2명 강진군 정착
- * 남북하나재단 영농성공패키지 프로그램 : 실습생 월 80만원, 실습능가 월40만원 지원(6개월), 종료 후 평가를 거쳐 1,500만원 영농지원금 지급



- 강진군 관내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12월 기준 5명에서 2017년 10월 기준 1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 추세
- 국민디자인단 사업을 통해 강진군의 귀농, 귀어정책과 연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음
- 영농성공패키지 사업과 별개로 귀농, 귀어, 귀촌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
- * 2017년 남북하나재단 영농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자 8명 중 2명(강진군)

□ 세부 운영성과

- 누구도 믿지 못하는 깊은 불신이 국민디자인단 운영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
- 남한에서 경험했던 인간관계에서 경험했던 사기, 실망, 대인 기피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음
- 지역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과 신변보호담당관(경찰)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 존재
- * 초기 정착금을 사기결혼, 사업투자 등으로 탕진하는 사례 빈번
-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농촌에 새로운 인구 유입의 효과를 기대
-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정이 대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농촌 정착은 긍정적 효과
- 20대 ~ 40대의 젊은 층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농촌으로 정착할 경우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
- 단순 전입이나, 출산장려금을 목적으로 주소를 두는 가상인구에 비해 실제적인 생산가능 인구 증가 할 것으로 기대
- * 2017 선정된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공모사업 내용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서비스 포함
- 수도권에서 정착실패를 경험하지 않고, 하나원 퇴소 이후 귀농, 귀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
- 하나원 정규 교육 기간에 지자체 귀농담당자가 직접 귀농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 마련
- * 2017.11.24.(금) / 화천 제2하나원 / 북한이탈주민 대상 귀농 성공사례 교육

-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(2017.10.)으로 제도적 지원정책 마련
- 2017년 현재 1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, 정착지원금이나 주거지원금을 명시해 놓은 지자체는 강진군이 유일
- * 정착지원금 : 200만원, 주거지원금 120만원, 지역은행과 연계한 대출상품, 창업지원금 제공 등

< 국민디자인단 운영 전·후 비교 >

| 국민디자인단 운영 前(AS-IS) | 국민디자인단 운영 後(TO-BE)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무지, 무관심 • 한시적인 자금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방관 • 준비없는 귀농으로 실패 사례 빈번 • 통일부, 하나재단 등 중앙의 단방향 정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까운 이웃이자 통일의 동반자 • 상호 신뢰, 자립의지의 중요성 인지 • 체계적인 정착지원으로 성공사례 발굴 • 지자체, 수혜대상자의 상황식 정책 추진 |

□ 향후 추진 계획

- 남북하나재단 및 강진군 귀농사관학교와 연계한 체계적인 귀농프로그램 제공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센터 마련
- 폐교를 활용해 운영 중인 강진군 귀농사관학교의 1층 일부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로 리모델링 계획
- 2017.10.16. 서울시 예산 5억원이 투입되는 '서울 농장' 사업에 선정되어 기숙형 교육시설과 실습농장이 조성될 예정
- * 강진군은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, 운영 중
- 북한이탈주민 협의체 구성 및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마련
- 강진군 마량면 거주 이은영(43) 주도로 전복양식과 수산물 제조 판매업 법인등록(2017.9.)
- * 수익금의 일부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사용, 일자리 창출 기대
- 2019년 LH공사 국민임대주택 150세대 입주, 농어촌 공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귀농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기대
- 기존 마을 만들기, 지역공동체 사업과 연계·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 귀농·귀촌인을 위한 거점마을로 육성

붙임1 : 국민디자인단 활동 실적 및 단계별 산출물

붙임2 : 국민디자인단 활동 총평(애로 및 건의사항 포함)

붙임1 국민디자인단 활동 실적

□ 국민디자인단 활동 실적

| 구분 | 일시 | 장소 | 참석자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차 | 2017년 06월 16일 13:00 ~ 18:00 | 강진군 칠량면 송촌마을 | 국민디자인단 8명, 디자이너, 담당 공무원 |
| 2차 | 2017년 06월 20일 14:00 ~ 19:00 | 강진군 칠량면 송촌마을, 현천마을 | 국민디자인단 9명, 디자이너, 담당 공무원, 협업기관 담당자 |
| 3차 | 2017년 06월 25일 12:00 ~ 17:00 | 강진군 군동면, 마량면 | 국민디자인단 6명, 디자이너, 담당 공무원 |
| 4차 | 2017년 07월 10일 12:00 ~ 17:00 | 강진군 강진읍, 칠량면 | 국민디자인단 6명, 디자이너, 담당 공무원 |
| 5차 | 2017년 07월 19일 12:00 ~ 17:00 | 강진군 칠량면 현천마을 | 국민디자인단 5명, 디자이너, 담당 공무원 |
| 6차 | 2017년 07월 23일 12:00 ~ 17:00 | 강진군 칠량면 현천마을 | 국민디자인단 5명, 디자이너, 담당 공무원 |
| 7차 | 2017년 07월 24일 12:00 ~ 16:00 | 강진군 칠량면, 도암면 | 국민디자인단 10명, 디자이너, 담당 공무원 |
| 8차 | 2017년 07월 31일 12:00 ~ 17:00 | 강진군청 소회의실, 귀농사관학교, 축체장 | 국민디자인단 10명, 디자이너, 담당 공무원 |
| 9차 | 2017년 08월 8일 12:00 ~ 17:00 | 강진군청 소회의실 | 국민디자인단 10명, 디자이너, 담당 공무원, 경찰서 담당자 |
| 10차 | 2017년 08월 17일 11:00 ~ 16:00 | 서울 남북하나재단 | 국민디자인단 5명, 디자이너, 담당 공무원, 하나재단 담당자 |
| 11차 | 2017년 08월 21일 12:00 ~ 17:00 |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| 국민디자인단 6명, 디자이너, 담당 공무원 |
| 12차 | 2017년 08월 29일 12:00 ~ 17:00 |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| 국민디자인단 6명, 디자이너, 담당 공무원 |

- 17 -

붙임2 국민디자인단 활동 총평(예로 및 건의사항 포함)

□ 국민디자인단 활동 총평

-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점차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번 국민디자인단의 역할이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
 - 탈북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고,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은 이상 아무리 공감하고 이해하려 애써도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음
 - ‘먼저 온 통일’이라는 말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방인이 아닌 공동체 일원이자 동반자라는 인식 확대 필요
- 함께 사는 공동체문화, 사람들 사이 흐르는 온기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 마련
 -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히 서비스 수요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으나, 오히려 이분들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, 살아가려는 의지와 희망을 배울 수 있는 계기
 - 지역민들도 TV에서나 접하던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하거나 차별적 시선이 아닌 이웃사촌으로 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
-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,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 존재
 -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성년 이후 새로운 언어, 문화, 교육,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일반국민과 동등한 대우만으로 성공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움
 - 주변에서 따뜻한 관심과 격려, 스스로의 자립의지가 중요하며 보편적 복지 뿐만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복지정책 필요

- 18 -

□ 국민디자인단 추진 시 애로 및 건의사항

- 국민디자인과제 메뉴얼이 수요자 욕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디자인 기법이 잘 적용되어있으나 개별 과제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시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
 - 올해 처음 도입된 스토리투어의 활동 내용이나 결과물 작성이 일반인들이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고려
 - 페이스북, ucc, 만화작업 등 결과물 작성은 결국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결과물을 고려

- 서비스 디자이너가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되어있어,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 - 서비스디자인 전문가들의 지역별 안배를 위해 디자인진흥원에서 서비스디자이너 교육을 통해 지방에서도 서비스디자이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희망